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본격화

전북자치도, 내년 3월까지 초미세먼지 저감 맞춤형 집중대책 15개 추진 ... 지속가능한 대기 질 개선 목표로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겨울철 공기 질 개선과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본격 시행한다. 전북자치도는 12월부터 3월까지 이어지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에 맞춰,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조치를 통해 도민들의 생활 환경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가 2019년 처음 계절관리제를 도입한 이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시행 전(38.4㎍/㎥) 대비 17.5 ㎍/㎥ 감소했고, 초미세먼지 농도 15 ㎍/㎥ 이하의 ‘좋은’ 일수도 37일 증가하는 등 도민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도 9개 부서, 시

군, 전북지방환경청과 협력하여 수송, 생활, 산업 등 6개 분야에서 총 15개 중점 대책을 추진한다.

수송 분야에서는 도내 집중관리도로(53개 지점, 174.05km) 도로 청소 강화, 관급 사업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점검 등을 추진한다.

생활 분야에서는 영농폐기물·영농잔재물 수거처리 강화 및 영농잔재물 불법소각 등 생물성연소를 집중 단속하고,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161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점검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생활시설?주거지 주변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중점 점검 관리하고, 민간 감시원 및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오염 우려 사업

장 감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홍보 분야에서는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도·시군 누리집, 주요 전광판, 영상알라미, SNS 등을 통해 계절관리제를 집중 홍보한다.

평가 분야에서는 계절관리제 이후 시공간 우수사례 등 공유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시군 이행실적을 평가한다.

정책 분야에서는 2025년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하 충전시설 지상이 전 지원, 생활주변 소규모 세탁소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 인천, 경기 등 주요 특·광역시에서는 5등급 차량의 평일

운행 제한이 시행되며,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이나 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자원에 조치를 원하는 차량 소유주는 시군에 신청하면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현욱 전북자치도 생활환경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도민들께서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대중교통 이용과 국민행동요령 준수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지회장 유유순)가 주관하는 ‘제27회 전북소비자대회’가 지난달 29일 전북여성가족재단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제27회 전북소비자대회’ 성황리 마무리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교육·정보의 장 마련·유공자 23명 표창, 농촌 학생 10명에 장학금 전달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지회장 유유순)가 주관하는 제27회 전북소비자대회’가 지난달 29일 전북여성가족재단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의 날(12월 3일)을 기념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와 올바른 소비문화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23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으며, 농촌 지역 중·고등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지역사회의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실현했다.

또한, 김제선 순천대 소비자학 트랙 교수가 디메프 사태로 본 전자상거래 소비자 권익’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권리와 안

전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어 ‘소비자 골든벨’ 퀴즈 대회와 소비자 단체 간 단합 행사도 열려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와 연계해 전북특별자치도는 12월 2일부터 6일까지 도청 1층 로비에 ‘찾아가는 소비자정보전시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전시회에서는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피해 예방 요령을 제공하며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자와 어린이를 위한 피해 예방 인형극 교육, 청소년 경제교육, 다문화 가

정 및 주부 대상 맞춤형 교육 등 매년 약 8,000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한 도내 24,303개 통신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온라인 쇼핑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포럼을 열어 비대면 거래 환경에서도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소비 환경이 복잡해지고 새로운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도민들이 책임감 있고 안전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역할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도디지털융합센터,가명정보지원센터 개소...도민 교육 본격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디지털융합센터가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가명정보 활용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도는 지난 28일 ‘전북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개소에 이어 12월 한 달 동안 도민과 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가명정보의 개념과 실무를 알리고, 이를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가명정보 인식제고 교육 △전문인력 양성교육 △찾아가는 가명정보 교육이다.가명정보 인식제고 교육은 19일 1차 교육에 이어, 12월 5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전북테크비즈센터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 교육은 가명정보 제도의 이해와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가명정보 처리 절차, 서식 작성, 적정성 검토, 결합 실무 등 심화된 내용을 다룬다. 8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 과정은 20일 1차 교육에 이어, 12월 10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열리며, 데이터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찾아가는 가명정보 교육은 교육이 필요한 기관과 협의해 2시간 이상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기관의 요구를 반영한 현장 중심 교육으로, 도민과 기업들이 가명정보 활용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디지털융합센터 AI융합팀(☎63-226-907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제2기 자치경찰 주민 참여단’ 위촉 및 간담회 행사를 개최했다.

지역 맞춤형 치안 강화

전북 자치경찰위원회, 제2기 주민 참여단 위촉
도내 지역민 112명으로 구성... 2026년 11월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제2기 자치경찰 주민 참여단’ 위촉 및 간담회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112명의 참여단이 새롭게 위촉되어, 도민의 목소리를 치안정책에 반영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참여단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6세 이상의 도민을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모집했으며, 활동기간은 2024년 11월부터 2026년 11월까지이다.

이들은 범죄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화해 자치경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참여단은 SNS를 통해 자치경찰 정책을 홍보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자치경찰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도 수행한다.

주민참여단원들은 위촉장 수여식을 한 후 신일섭 사무국장과 함께 전북자치도내 치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형식적이고 보여주는 기식 행정보다는 내실 있는 치안 질서 확립으로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자치경찰 상 구현에 앞장서 달라는 요청을 주문하는 단원이

있었다.

이어서 전주역이 새로이 재건축 중에 있는데 역을 가로지르는 고가다리 앞쪽에 감시카메라가 없어 늦은 밤과 새벽에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이 위험하므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주면 좋겠고, 역 뒤쪽을 치안정책에 반영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참여단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6세 이상의 도민을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모집했으며, 활동기간은 2024년 11월부터 2026년 11월까지이다.

이들은 범죄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화해 자치경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참여단은 SNS를 통해 자치경찰 정책을 홍보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자치경찰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도 수행한다.

주민참여단원들은 위촉장 수여식을 한 후 신일섭 사무국장과 함께 전북자치도내 치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형식적이고 보여주는 기식 행정보다는 내실 있는 치안 질서 확립으로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자치경찰 상 구현에 앞장서 달라는 요청을 주문하는 단원이

/이만호 기자

에이즈 예방 위한 HIV 조기 검진 강화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지역사회 보호·감염 예방 앞장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세계 에이즈의 날은 1988년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제정되어 매년 12월 1일에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편견을 바로잡고, 예방과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는 국제적인 캠페인이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HIV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135건을 진행한 결과, 39건(28.8%)이 양성으로 판별되었다. 이는 에이즈의 조기 발견

과 확산 방지를 위한 중요한 노력의 일환이며,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진행되고 있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원인 바이러스로, 감염되었다고 해서 바로 AIDS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HIV는 발병 전 잠복기를 거쳐 적절한 치료를 통해 체내 HIV 양을 줄이고, 감염자의 건강을 유지하며 전파를 차단할 수 있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조기 진단을 받은 감염자들이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감염 확산 방지에 노력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전특공노, 올 존경받는 간부공무원 5인 감사패

제8대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특공노, 송상재 위원장)은 2024년 존경받는 간부공무원 시상식을 지난달 29일 전북특별자치도청 6층 노조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이번 시상식에서 총 5명(△일자리민생경제과 김영식 과장 △도로관리사업소 박혜열 소장 △새만금지원수질과 권민호 과장 △농업기술원 이정민 과장 △동물위생시험소 고원석 과장)의 간부에게 감사패와 꽃다발이 전달됐다.

존경받는 간부공무원 시상식은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조가 주관하여 2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것으로, 이번 시상식은 최근 간부공무원 갑질 등으로 몸살을 앓은 전북특별자치도로서는 더욱 의미 있는 시상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시상식에 시상자로 참여한 전북특별자치도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소통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고, 후배들로부터 투터운 신망을 받는 간부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격려와 소통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존경받는 간부공무원 선발은 지난 10월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했으며, 노동조합에 가입된 6급 이하 조합원들이 탐장급(5급 사무관) 이상 간부 공무원을 3개 항목(직업윤리, 업무능력, 팀워크), 14개 지표에 대해 평가했다.



지난달 29일 전북특별자치도청 6층 노조 사무실에서 2024년 존경받는 간부공무원 시상식이 열렸다.

구성원의 인적 존중, 업무의 합리적 처리, 지도력, 도덕성과 청렴성, 직원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배려 등이 선정을 위한 판단 기준으로 제시됐다.

조합원이 기술한 존경 받는 간부공무원 유형으로는 △늘 존중하는 말투와 태도, 꼼꼼한 업무처리 △팀합원에 힘쓰고, 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간부, 업무 지시가 명확하고 담당자가 업무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간부 △조직의 봉사 및 화합, 업무추진 능력, 경력 전문성 등이 탁월한 간부 △권위적이지 않고 인자하며, MZ공무원과 소통이 적극적인 간부 등이 있었다.

송상재 위원장은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고 싶은 직장, 수평적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간부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여주길 바라며, 이번 설문조사가 배려하는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순창군의회 임시회 개최

순창군의회(의장 손종석)는 지난달 29일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9회 임시회를 개최해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과 출연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영일 순창군수의 시정연설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다. 이번엔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184억 증가한 5,293억원으로 순창군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까지 본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11월 27일 순창군의회는 제289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를 열어 순창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3건을 심의해 이날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의결했다.

손종석 의장은 “순창군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의원 여러분께서 군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안 심의에 철저히 임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최용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순창군의 인구감소 문제 해결과 지역 활력 증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송창=이양원 기자

한파 대비 도내 양식시설 사전점검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겨울철 수산양식 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파 대비 양식시설 사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오는 12월 11일까지 진행되며, 한파와 저수온 경보 및 주의보 발효 시 수시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겨울철은 한파, 폭설, 강풍, 풍랑 등

자연재해로 인해 수산 양식시설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이며, 저수온에 의한 양식 수산생물 피해도 자주 발생한다.

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도, 수산기술연구소, 시·군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겨울철 수산양식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